



1987년 충북전자에서 출발한 심텍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및 통신 인쇄 회로기판을 전문 제조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5대 반도체 기업과 거래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업, 심텍에는 안전이 있다. 심텍의 안전을 경영지원본부장이기도 한 김규태 상무이사를 만나 들어본다.

상무이사 김 규 태



Telecommunications Board를 제조 생산함으로써 반도체 및 통신용 회로의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DRAM 반도체에 들어가는 Memory Module은 현재 세계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5대 D램 업체에 메모리용 PCB(인쇄회로기판)를 모두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1위 기업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은 물론이고 차세대 제품인 DDR2, BOC, Flip Chip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세계적인 마켓 리더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소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규제, 번거로움 등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은 안전에 대한 혁신이라고 할 만큼 기업의 성장과 안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안전을 배제한 경영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지역경제, 국가경제까지도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야기 시킵니다. 특히 안전관리 활동의 부재 및 소홀함은 일순간에 근로자의 생명과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안전은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안전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예방과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을 몸소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철학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의 안전철학이라기 보다 우리 심텍의 안전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심텍의 안전철학은 실천입니다.

심텍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텍은 1987년에 충북전자를 모태로 출발한 국내유일의 반도체 및 통신용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90년초에 전량 수입해 오던 메모리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SIMM PCB를 독자개발에 성공하였고, 이어 DIMM, RIMM, DDR 등의 Memory Module 뿐만 아니라 Non-Memory Package Substrate와



불안전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때 사고는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이 따른다면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 규정, 안전수칙 등이 많지만 경영층, 근로자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표어에 불과하며, 반복적, 습관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위험노출 빈도도 그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신탁에서는 2006년도 어떤 안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요.

2006년도는 설비 증설, 변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보건환경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사전검토, 위험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설비 및 물질은 구매발주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면 사전검토에 의한 반입 후 개선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로 수립한 안전보건환경목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지적, 회신하여 안전보건환경목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는 선진 안전국으로 가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안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불안전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협력회사 지원 및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투자부분입니다.

안전에는 일부 비용이 수반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 배제하기 쉽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투자는 매일 매일 무사하게 지나가는 현실과 맞차하는 순간에 근로자가 보호되었을 때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시점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미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선행되는 안전문화가 조속히 사회전반에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실천하는 안전문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호장치도 사람이 제거하고, 점검하지 않거나, 알고 있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진 안전국은 다른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안전이야말로 선진 안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일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